

#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연구1)

- 청암 박종실과 남주 강성익의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Entrepreneur of Jeju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on the Park Jong-Sil and Kang Sung-Ik's entrepreneurial activities-

김희철\*, 고광명\*\*, 강영순\*\*\*, 진관훈\*\*\*\*

- I. 머리말
- II. 일제하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
  - 1. 제주도민 회사의 설립현황
  - 2. 제주도민 회사의 설립특성
- III. 청암 박종실과 남주 강성익의 기업활동 비교연구
  - 1. 기업활동
  - 2. 경영활동
  - 3. 경영철학
  - 4. 사회공헌활동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I. 머리말

이 글은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중 대표적인 두 기업가 즉 청암(淸岩) 박종실(朴宗實)과 남주(南洲) 강성익(康性益)을 중심으로 제주도 기업가의 기업활동, 경영철학, 사회적 공헌 등을 고찰하려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 기업가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사 연구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사 연구의 균형을 회복하고 제주경영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제주의 기업가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학문적 과제라 여겨진다. 또한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들이 당시 제주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역사적 사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제주기업인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제주기업인의 현실을

1) 이 연구는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2-BS2033).

\*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한라대학 교수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연결되는 제주의 기업가상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제주기업인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박종실과 강성익은 제주의 대표적 근대 기업가이며 사회사업가로서 타의 모범이 될 역사적 인물이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는 박종실(1885-1966)은 제주의 대표적인 근대 무역인으로 한국해운업의 발전토대를 마련했으며 제주도 근대경제 형성에 이바지한 기업가이다. 박종실은 1905년 제주최초의 상점인 <박종실상점>을 제주면 1도리에 개점하여 상당한 영업성과를 이룩한 제주의 대표적 기업가이다. 또한 박종실은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으로 삼았으며 신용제일주의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도를 낮추며 시세변동에 대비하는 경영전략을 가진 사업가였다.

박종실과 함께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는 남주 강성익(1892-1968)이다. 일반적으로 근대 제주의 대표적 기업가를 들라고 한다면 ‘산북에는 박종실, 산남에는 강성익’ 라는 게 오래 전부터 전해 오는 정설이다. 이처럼 강성익은 박종실과 함께 식민지기 제주도 토착자본을 바탕으로 근대 제주 경제의 산증인이며 대들보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이다.

이 글의 순서는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들 연구를 위한 기초·배경적 연구로 2장에서 일제도 제주도민 회사의 설립 현황과 설립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어 3장에서는 일제하 제주도의 대표적 기업가 박종실과 강성익의 기업활동, 경영활동, 경영정신, 사회공헌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기초로 4장 맺음말에서는 이 두 기업가의 공통적 특성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 II. 일제하 제주도민 회사의 설립현황과 특성

### 1. 제주도민회사의 설립 현황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의하면 일제하 제주도에는 전체 29명의 기업가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 중 한국인은 18명(62%) 일본인은 11명(38%)이다. 그리고 당시 법인회사 설립현황을 보면 제주도에 7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일본인 회사는 3개사, 한국인 회사는 4개사가 설립되었다. <표 1>에서 보면 한국인이 기업경영에 참가한 제주미유조합(1919년)은 자본금이 1만5천3백원(불입자본금 1만5천3백원)으로 다른 법인기업에 비해 자본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매출액은 6만원으로 제주전기주식회사(3만원), 제주주조주식회사(3만원)에 비해 2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신용, 지불, 업태는 A등급으로 다른 6개 법인기업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1> 주요 제주도 법인회사 설립현황(1931년)

(단위 : 원)

법인기업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연월	자본금	불입 자본금	매출액	배당	신용	지불	업태
濟州米油組合	朴宗實	미유판매업	'19.12	15,300	15,300	60,000	30	A	A	A
濟州商船株式會社	金根蓍	선박운수업	'22.08	150,000	37,000	-	-	B	B	B
濟州綿業株式會社	金根蓍	면화판매업	'24.10	200,000	50,000	20,000	결	C	C	C
濟州電氣株式會社	小倉武之助	전등·전력	'25.02	100,000	25,100	30,000	6	C	C	C
濟州通運株式會社	萩原駒藏	운송업	'25.06	6,000	6,000	-	-	C	C	C
濟州南部運輸株式會社	康性益	자동차운수	'27.03	7,000	7,000	-	-	C	C	C
濟州酒造株式會社	衛藤伊三郎	소주제조업	'28.05	40,000	10,000	30,000	초	B	B	B

자료 : 岡田寅喜 편(1930), {조선실업신용대감}

한편 고승제<sup>2)</sup>에 의하면 1930년 말에 이르러 제주도에는 13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 중 일본인 회사는 1개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3개의 한일합자회사가 존재하였는데 나머지 9개의 회사는 오로지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한국인 회사들이었다. 아울러 1개사의 일본인 회사도 상공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한림읍에 설립되었던 수산회사인 제주도어업주식회사로써 이에서 보면 당시 제주상공업에 있어서 일본인 비중은 그리 크지 않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제주도민자본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일제시기 다수의 제주도민 법인회사가 설립되었다. 예를 들면 제주도민들 가운데 유력자본가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와 경쟁하였다. 이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민회사의 실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36년간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회사 수는 52개이다. 1920년대에 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에는 18개사, 1940년대 23개사로 회사설립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30개사, 일본인 18개사, 한일합자 4개회사이며 그 중에 34개 법인회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설립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들이다. 이를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43개사, 합자회사 4개사, 합명회사 4개사, 유한회사 1개사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회사의 소멸형태를 보면 해산이 12개사, 합병 1개사, 상호변경 6개사이며 소멸 시기는 1920년대 1개사, 1930년대 5개사, 1940년대 13개의 회사가 소멸되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의 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제의 식민지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 고승제(1975), {한국경영사연구}(서울 : 한국능률협회), p.274.

## 2. 제주도민회사의 설립 특성

### 1) 연도별 회사설립의 특성

1910년 한일합방이후 한국은 근대적 회사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1911년 1월 <조선회사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인에 의한 회사설립은 상당히 억제되었다. 그러나 1920년 4월 <조선회사령>이 폐지됨으로써 조선인에 의한 회사설립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후 제주도에서는 1920년 초부터 근대기업으로 진출하면서 회사설립이 활발히 촉진되었다. 제주도 법인회사 설립은 각 산업분야에 걸쳐 확대되었는데 1934년까지는 1내지 2개사 정도의 설립에 그쳤으나 1935년부터는 그 추세가 증가하여 동년에는 총 5개사(자본금 총액 140,000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36년에는 3개사(자본금 총액 372,500원) 등으로 점차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가 1937년의 1개사(자본금 총액 20,000원)를 최저점으로 하여 이후에는 다시 신설회사 및 자본금 총액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회사설립이 절정에 달한 때는 1940년대 초반인데 즉, 5개년 동안에 설립된 회사 수는 22개 사였고 이에 투입된 자본금 총액은 1,951,000원으로 식민지기 전 기간을 통하여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회사 수 및 자본금 총액의 각각 42.3%와 57.4%에 달했다(<표 2> 참조).

이상과 같이 1940년대 전후 5개년 동안은 제주도 법인회사 설립이 절정기였으며 이 무렵에 설립된 회사들은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에 비하여 자본규모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매년 평균 4.4사가 설립되었고 자본금 총액도 매년 390,200원 증가되었는데 이 시기가 일제시기 전 기간을 통하여 제주도 법인회사 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표 2> 연도별 회사설립 현황(1910~1945)

(단위 : 원, 사)

년도	구분	수산업	제조업	양조업	전기업	운수업	상업	기타	합계
1910	자본금					450			450
	회사수					1			1
1919	자본금						52,000		52,000
	회사수						2		2
1922	자본금					150,000			150,000
	회사수					1			1
1923	자본금		10,000						10,000
	회사수		1						1
1924	자본금		200,000			10,000			210,000
	회사수		1			1			2
1925	자본금				100,000	6,000			106,000
	회사수				1	1			2
1927	자본금					7,000			7,000
	회사수					1			1
1928	자본금			40,000					40,000
	회사수			1					1
1930	자본금		-						-
	회사수		1						1
1933	자본금	2,000							2,000
	회사수	1							1
1934	자본금		-						-
	회사수		1						1
1935	자본금			50,000		30,000	60,000		140,000
	회사수			1		2	2		5
1936	자본금	300,000				22,500	50,000		372,500
	회사수	1				1	1		3
1937	자본금					20,000			20,000
	회사수					1			1
1938	자본금						110,000		110,000
	회사수						2		2
1939	자본금		200,000	28,000		-			228,000
	회사수		2	1		1			4
1940	자본금	-	665,000	40,000			50,000		155,000
	회사수	1	2	1			1		5
1941	자본금		370,000			30,000			400,000
	회사수		5			2			7
1942	자본금		280,000						280,000
	회사수		2						2
1943	자본금		-			695,000		21,000	716,000
	회사수		1			3		1	5
1944	자본금			400,000					400,000
	회사수			3					3
1945	자본금					-			-
	회사수					1			1
합계	자본금	302,000	1,125,000	558,000	100,000	970,950	322,000	21,000	3,398,950
	회사수	3	16	7	1	16	8	1	52

주 : 상호변경 법인회사는 자본금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

## 2) 자본규모별 회사설립의 특성

이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 법인회사들의 자본규모별 현황을 보면 자본금 총액이 1만 원이 하인 회사 수는 5개사로 전체 회사의 9.6%, 자본금 1만 원 이상~5만 원 이하 인 회사 수는

15개사로 전체 회사의 28.8%이다. 또한 5만 원 이상~10만 원 이하 인 회사 수는 9개사로 전체의 17.3%에 달하여 당시 자본금 10만원 이하의 영세한 법인회사 수는 29개사로서 전체 법인회사 수의 55.8%이다. 반면 자본금이 10만 원 이상의 회사 수는 5개사인데 이 중에 2개사 만이 3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리고 당시 법인회사의 소멸형태를 보면 해산이 12개사, 합병 1개사, 상호변경 6개사인데 이 중에 법인회사 상호가 변경되어 자본금이 불명확한 회사 수도 6개사, 법인회사 자본금을 파악하지 못한 회사도 2개사이다.

이상의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연대가 바뀔에 따라서 법인회사의 설립 수는 증가하였는데 자본금 10만 원 이하의 법인회사의 설립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본금이 30만 원 이상인 2개 사는 일본인이 설립한 제주도어업(주)과 제주자동차(주)로서 대규모 자본금에 따른 제주인의 회사설립은 없었다. 즉 당시 제주자본은 규모 면에서 30만 원 미만이 한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자본규모별 회사설립 현황(1910~1945)

(단위 : 원, 사)

자본금	수산업	제조업	양조업	전기업	운수업	상업	기타	합계
1만원 미만	1				3	1		5
1만원~5만원		2	3		6	3	1	15
5만원~10만원		4	1			4		9
10만원~30만원		7	3	1	2			3
30만원 이상	1				1			2
불명	1	3			4			8
합계	3	16	7	1	16	8	1	52

주 : 불명은 상호변경 법인회사로 자본금이 불명확함.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

### 3) 민족별 회사설립의 특성

일제시기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회사는 총 52개사였고 이에 투입된 자본금 총액은 3,398,950원이었으며 1개사 당 평균 자본금은 73,890원이었다. 이 중에서 한국인 단독으로 설립된 회사 수는 30개 사이며 자본금 총액은 1,534,950원으로 1개사 당 평균 자본금은 61,398원이었다. 또한 합일합자로 설립된 회사 수는 4개사이고 자본금 총액은 243,000원이었으며 1개사 당 평균 자본금은 60,750원이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 수는 18개 사이며 자본금 총액은 1,621,000원으로 1개사 당 평균 자본금은 108,066원이었다.

한편 동기간 중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민족별로 산업별 진출현황을 보면 한국인은 운수업에 11개사가 진출하여 전체의 36.7%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제조업에는 전체의 23.3%에 해당하는 7개사가 진출하였고 양조업에 6개사(20%) 등이었다. 일본인은 제조업에 8개사가 진출하여 전체의 44.4%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운수업과 상업에는 전체의 16.7%에 해당

하는 각각 3개사가 진출하였다. 또한 한일공동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는 제조업, 운수업, 상업에 진출하였는데 특히 1924년에 설립된 제주면업(주)은 자본금이 200,000만원으로써 규모가 큰 한일합자회사였다(<표 4> 참조).

이상에서 볼 때 일제시기에는 한국인 회사설립에 제주도민의 토착자본들이 적극 참여하여 일본인에 비해 회사 수에서 일본보다 12개사 정도 많았지만 자본금에서는 다소 적은 편에 속한다. 당시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주력한 산업분야는 제조업, 운수업, 상업 등이었으며 특히 한국인은 주회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주자본의 규모나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주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주조업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민족별 회사설립 현황

(단위 : 원, 사)

민족별		수산업	제조업	양조업	전기업	운수업	상업	기타	계
한국인	자본금(A)	2,000	590,000	518,000		262,950	162,000		1,534,950
	회사수(B)	2(1)	7(1)	6		11(3)	4		30(5)
	A/B	2,000	98,333	86,333		32,868	40,500		61,398
일본인	자본금(A)	300,000	335,000	40,000	100,000	695,000	130,000	21,000	1,621,000
	회사수(B)	1	8(2)	1	1	3(1)	3	1	18(3)
	A/B	300,000	55,833	40,000	100,000	347,500	43,333	21,000	108,066
한일 합자	자본금(A)		200,000			13,000	30,000		243,000
	회사수(B)		1			2	1		4
	A/B		200,000			6,500	30,000		60,750
총계	자본금(A)	302,000	1,125,000	558,000	100,000	970,950	322,000	21,000	3,398,950
	회사수(B)	3(1)	16(3)	7	1	16(4)	8	1	52(8)
	A/B	151,000	86,538	79,714	100,000	80,912	40,250	21,000	73,890

주1 : ( )괄호 안은 상호변경 회사(자본금 불명)를 나타냄.

주2 : A/B는 상호변경 회사를 제외한 실제회사 수로 계산하였음.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

#### 4) 산업별 회사설립의 특성

일제시기에 설립된 법인회사의 산업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16개사(자본금 총액 1,125,000원), 운수업에 16개사(자본금 총액 970,950원)가 진출하여 각각 전체의 30.7%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상업에는 전체의 15.3%에 해당하는 8개사(322,000원)가 진출하였고 양조업에 7개사(558,000원), 수산업에 3개사(302,000원), 전기업에 1개사(100,000원), 기타 영화, 연극에 1개사(21,000원)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체 법인회사 수와 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수산업, 양조업, 전기업, 상업인데 그 중에서도 수산업과 전기업에 대한 비중이 비교적 낮다. 반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제조업, 운수업인데 특히 이 중에는 양조업에 진출한 기업수가 16개사(자본금 1,125,000원)로 동 시기에는 양조업에 대한 진출이 주목된다(<표 5>참조). 당시 제주지역의 양조회사들은 주로 소주, 탁주와 같은 조선주를 주로 생산하였는데 이들의 제품 원료는 당시 농가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등 농산물로서

원료조달이 용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제주경제권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부의 축적 수단인 주조업 경영이었다.

<표 5> 산업별 회사설립 현황

(단위 : 원, 사)

산업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합계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수산업					302,000	2	-	1(1)	302,000	3(1)
제조업			210,000	2	200,000	4(2)	715,000	10(1)	1,125,000	16(3)
양조업			40,000	1	78,000	2	440,000	4	558,000	7
전기업			100,000	1					100,000	1
운수업	450	1	173,000	4	72,500	5(1)	725,000	6(3)	970,950	16(4)
상업	52,000	2			220,000	5	50,000	1	322,000	8
기타							21,000	1	21,000	1
합계	52,450	3	523,000	8	872,500	18(3)	2,101,000	23(5)	3,398,950	52(8)

주 : ( )괄호 안은 상호변경 회사(자본금 불명)를 나타냄.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

### 5) 회사형태별 회사설립의 특성

일제시기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회사는 총 52개사였고 이에 투입된 자본금총액은 3,398,950원, 평균 자본금은 73,890원이었다. 이 중에 한국인이 설립한 주식회사가 23개사로 제주인 대표회사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0%이다. 자본금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2.15%로 1개사의 평균 자본액은 78,583원이다. 합명회사는 3개사로 10.0%, 자본금 총액의 비율은 5.08%, 평균 자본액은 26,000원이다. 합자회사는 3개사로 10.0%, 자본금 총액의 비율은 0.81%, 평균 자본액은 4,150원이다. 유한회사는 1개사로 3.0%, 자본금 총액의 비율은 1.96%, 평균 자본액은 30,000원이다. 한편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 총수는 한국인의 회사 총수와 비교하면 25%정도 차이는 있지만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회사설립 수가 증가하였다. 일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가 16개사로 일본인 대표회사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8%이다. 자본금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5.06%로 1개사의 평균 자본액은 118,538원이다. 합명, 합자회사는 각각 1개사로 10.0%, 자본금 총액의 비율은 3.09%, 1.85%이며 평균 자본액은 각각 50,000원과 30,000원이다.

평균 자본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일본인 회사가 높으며 특히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일본인 평균 자본액은 118,538원에 비해 한국인은 78,583원으로 다소 많은 편이다. 한국인 최대규모의 회사는 자본금 180,000원인 조선해면기업(주)이며, 이에 반하여 일본인 회사는 제주자동차(주)가 500,000만원을 최고로 하여 300,000만원의 회사가 1개사 더 있었던 것이 일본인 법인회사의 평균 자본액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표 6> 참조).

이상으로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의 회사조직별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의 주식회사 비율은 88.8%로 한국인의 77.0%가 주식회사로 설립된 것에 비해 약 10%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인의 합명, 합자회사의 비율은 한국인의 회사와 비교하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회사형태별 회사설립 현황

(단위 : 원, 사, %)

민족별	회사형태	자본금			회사 수			평균 자본액
		자본금	비율	전체비율	수	비율	전체비율	
한국인	유한회사	30,000	1.96	0.88	1	3.00	1.92	30,000
	합명회사	78,000	5.08	2.30	3	10.00	5.77	26,000
	합자회사	12,450	0.81	0.37	3	10.00	5.77	4,150
	주식회사	1,414,500	92.15	41.62	23(5)	77.00	44.23	78,583
	소계	1,534,950	100.00	45.17	30(5)	100.00	57.69	61,398
일본인	합명회사	50,000	3.09	1.47	1	5.60	1.92	50,000
	합자회사	30,000	1.85	0.88	1	5.60	1.92	30,000
	주식회사	1,541,000	95.06	45.33	16(3)	88.8	30.77	118,538
	소계	1,621,000	100.00	47.68	18(3)	100.00	34.61	108,066
한일합자	주식회사	243,000	100.00	7.15	4	100.00	7.70	60,750
<b>합계</b>		<b>3,398,950</b>		<b>100.00</b>	<b>52(8)</b>		<b>100.00</b>	<b>73,890</b>

주1 : ( )괄호 안은 상호변경 회사(자본금 불명)를 나타냄.

주2 : 평균자본액은 상호변경 회사를 제외한 실제회사 수로 계산하였음.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

### Ⅲ. 청암 박종실과 남주 강성익의 기업활동 비교연구

#### 1. 기업활동

##### 1) 박종실의 기업활동

###### (1)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제주도에서 회사조직을 가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은 1920년 이후이며 이들 회사들의 대부분은 운수회사이거나 해운회사였다. 그가 근대기업가로 변신한 것은 1922년에 설립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이로써 박종실은 1922년 그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운업에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기업설립운동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제주면업주식회사(1924)를 비롯하여 제주통운주식회사(1925), 제주구조주식회사(1928), 소화운송주식회사(1935)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제주상사주식회사(1935), 제주상운주식회사(1939) 등은 도민자본에 의하여 직접 설립한 기업들이다(<표 7>참조). 그리고 당시 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9개회사 중에서 5개의 회사는 1930년 중반에서 1940년 초에 해산되거나 상호를 변경한 회사들이다. 이처럼 그가 제주도 기업사에서 독보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은 이 무렵 전통적인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근대적 기업가이기 때문이다.

<표 7> 박종실의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현황

(단위 : 원)

법입기업 명	대표자	영업 목적	설립 년도	자본금	소재지	국적	소멸 시기	소멸 형태
제주상선주식회사	김응두, 고석중	해운업	'22	150,000	제주면	한국	'34.10.09	해산
제주면업주식회사	김근시, 山口源藏	면화판매업	'24	200,000	제주면	한일합자	'43.11.25	해산
제주통운주식회사	萩原駒藏, 최윤순	운송업	'25	6,000	제주면	한일합자	'42.07.15	해산
제주구조주식회사	衛藤伊三郎, 角健輔	소주제조업	'28	40,000	제주면	일본		
난곡면업주식회사	김근시	면화가공업	'34	-	제주면	한국		
제주상사주식회사	박종실, 角健輔	유통업	'35	30,000	제주면	한일합자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35	10,000	제주읍	한국	'42.09.18	해산
삼일해운주식회사	김태민	해운업	'36	22,500	제주읍	한국	'39.07.16	상호변경
제주상운주식회사	박종실	해운업	'39	22,500	제주읍	한국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1910~1945)}

(2) 대표이사 및 감사 재직기간

박종실은 1905년 <박종실상점>을 개점한 이후 제주도에서 9개의 기업조직을 가진 회사들을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였다. 박종실의 경영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회사설립에 관계된 8개사, 감사는 1개사에서 재직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은 제주상선주식회사, 제주통운주식회사에서 4회를 역임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에서 2회, 3개사에서 1회를 역임하였다. 감사의 재직기간은 소화운송주식회사에서 6년 동안 2회에 걸쳐 역임한 바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해운업 3개사, 운송업 2개사, 면화가공·판매업 2개사, 유통업 1개사, 소주제조업 1개사로서 이중 대부분이 해운업과 운송업에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결국 박종실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기보다는 해운업을 통해 무역상인으로 활동하였다고 여겨진다.

<표 8> 박종실의 대표이사 및 감사 재직기간

(단위 : 원)

법입기업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년도	자본금	대표이사	감사	회수
제주상선주식회사	김응두, 고석중	해운업	1922	150,000	1922-1934		4
제주면업주식회사	김근시, 山口源藏	면화판매업	1924	200,000	1924-1926		1
제주통운주식회사	萩原駒藏, 최윤순	운송업	1925	6,000	1925-1942		4
제주주조주식회사	衛藤伊三郎, 角 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1928-1934		2
난곡면업주식회사	김근시	면화가공업	1934	-	1934		1
제주상사주식회사	박종실, 角 健輔	유통업	1935	30,000	1935-1941		2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1936-1942	2
삼일해운주식회사	김태민	해운업	1936	22,500	1937		1
제주상운주식회사	박종실	해운업	1939	22,500	1939-1942		2

주) 대표자 김응두, 고석중(1922)→김근시(1923)로 변경됨.  
자료 : <표 7>와 동일.

(3) 영업세 납부실적

박종실을 포함한 일제시기 제주도내 기업가들의 영업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제주도 납세기록을 조사하였다. 당시 제주도에서 영업세(본세) 7원 이상 납부자는 제주읍 281명(개인 266, 법인 15), 한림읍 147명(개인 143, 법인 4), 애월면 40명(개인), 조천면 53명(개인 32, 법인 19)으로 총 468명이었다. 지역별로 납부금액을 보면 전체 20,743원87전 중에서 제주읍 12,383원19전(개인 10,281원54전, 법인 2,101원65전), 한림읍 6,496원52전(개인 5,304원, 법인 1,192원52전), 애월면 985원(개인), 조천면 876원16전으로 제주읍이 50% 이상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sup>. 법인회사별 영업세는 1941년 기준으로 제주상사주식회사(490원56전)와 제주통운주식회사(369원92전)가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종실은 제주읍내 법인회사 전체 납부액 1,551원65전 중에서 6개의 법인회사를 포함한 총 1,307원13전(84.2%)을 납부함으로써 개별기업가로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2) 강성익의 기업활동

(1)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강성익은 1918년 4월 서귀면 서귀리에 강성익통조림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공장은 자본금 5,000원으로 시작하여 전복, 소라 등을 제조하였다. 1925년 현재 시점에서 연간 노동력 6명으로 연간 730상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8,430원으로 제주도에서는 일본인을 제외한 한국인이 설립한 현승우통조림공장(자본금 9,000원, 생산액 1,050상자, 매출액 13,650원)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강성익은 같은 시기에 자본금 1,000원을 투자하여 조개단추를 조제하는 강성익조개단추공장을 설립하였다. 연간 노동력은 20명으로 연간 1,760관을 생

3) 제주상공회(1940), {제주상공회의소설립관계}, p.12.

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6,160원으로 제주도에서 제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1920년 이후 제주도에서 조직형태를 가진 회사들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회사들의 대부분은 운수회사이거나 해운회사였다. 그는 1927년에 설립한 제주남부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근대기업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성익은 1927년 운송업에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 운수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회사설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화운송주식회사(1935)를 비롯하여 제일전분주식회사(1939), 제주산업주식회사(1941), 제주자동차주식회사(1943)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특히 제일전분주식회사는 1935년 서귀면에 자본금 100,000원을 단독으로 투자하고 순수한 도민자본에 의해 전분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당시 그가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7개사 중에서 4개사는 1940년대 초반에 해산되거나 상호를 변경한 회사들이다(<표 9> 참조).

<표 9> 강성익의 회사설립과 경영참여

(단위 : 원)

공장 및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자본금	소재지	국적	소멸 시기	소멸 형태
강성익통조림공장	강성익	통조림제조업	'18	5,000	서귀면	한국		
강성익조개단추공장	강성익	조개단추제조업	'18	1,000	서귀면	한국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	川崎増造, 송문준	자동차운수업	'27	7,000	우면	합자	1942	해산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35	10,000	제주읍	한국	1942	해산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38	80,000	제주읍	한국	1940	상호변경
제일전분주식회사	강성익	전분제조업	'39	100,000	서귀면	한국		
제주도貝鉤주식회사	田中音吉	패구제조판매업	'40	50,000	서귀면	일본		
제주산업주식회사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판매	'41	100,000	제주읍	일본	1943	상호변경
제주자동차주식회사	萩原駒藏	자동차운수업	'43	500,000	제주읍	일본		

자료 : <표 8>과 동일.

## (2) 대표이사 재직기간

강성익은 1910년대 후반 통조림, 조개단추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대표로서 제주도 제조업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성익이 회사경영에 참여한 실태를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회사설립에 관계된 7개사에서 재직하였다.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은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에서 4회, 소화운송주식회사에서 3회, 제일전분주식회사에서 2회를 역임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에서 1회를 역임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운수업 3개사, 해조류가공·판매업 2개사, 농산물 가공 및 전분 제조업 각각 1개사로서 이중 대부분을 자동차운수업에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결국 강성익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업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강성익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단위 : 원)

공장 및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자본금	대표이사	회수
강성익통조림공장	강성익	통조림제조업	'18	5,000	-	-
강성익조개단추공장	강성익	조개단추제조업	'18	1,000	-	-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	川崎増造, 송문준	자동차운수업	'27	7,000	1927-1942	4회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35	10,000	1935-1943	3회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38	80,000	1938-1940	1회
제일전분주식회사	강성익	전분제조업	'39	100,000	1939-1942	2회
제주도패구주식회사	田中音吉	패구제조 판매업	'40	50,000	1940	1회
제주산업주식회사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 판매업	'41	100,000	1941-1943	1회
제주자동차주식회사	萩原駒藏	자동차운수업	'43	500,000	'43	1회

자료 : <표 9>과 동일.

## 2. 경영활동

### 1) 박종실의 경영활동

#### (1) 박종실상점

박종실은 행상에서 출발하여 1905년 8월에는 제주면 1도리에 박종실상점을 개점하였다. 자본금은 소규모금액으로 시작하여 식료품, 견면포, 철물류 등의 잡화를 취급하는 무역상이었다. 경영목적은 제주도 물자를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의 물자를 제주로 들여오는 수출입 교역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른 법인회사를 하나씩 설립해 나갔다<sup>4)</sup>. 그 후 박종실이 법인회사를 직접 설립한 회사는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년), 제주상사주식회사(1935년), 제주상운주식회사(1939년) 등 3개회사이다. 이들 회사들은 박종실상점을 구심점으로 형성된 대규모 조직이었다. 그러나 박종실상점은 개인회사였기 때문에 법인회사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지만 경영조직으로서의 역량은 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따르면 박종실상점이 연간 판매한 매출액은 4만6천8백원으로 제주도에서는 제1위를 차지하였다. 제2위는 최윤순으로 4만3천원, 제3위는 村田嘉藤治으로 4만2천원이었다. 한편 부동산 등 재산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박종실의 소유한 재산총액은 8만5천원이었으며 최윤순은 4만6천원, 村田嘉藤治은 5만5천원이었다. 그 외의 한국인들은 3만5천원에서 6천2백원에 이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자산은 박종실이 7만원, 角 健輔이 6만5천원, 최윤순과 石井榮太郎이 3만원을 차지하였다. 신용은 A급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동업자 지위에서 1위를 차지

4)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12월7일자.

하였으나, 지불, 임대부분에서는 B급 상태였다<sup>5)</sup>. 그리고 박종실상점의 경영활동은 단순한 잡화류의 소매상에서 그치지 않고 자본력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분산투자하면서도 법인회사의 핵심은 언제나 박종실상점에 두었다. 또한 그는 여러 사업에 다각적 경영을 도모하면서도 언제나 박종실상점에서 구심점을 찾고 여타 부적절한 이권사업에는 손대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에서 특산물을 가공하는 회사가 적지 않았지만 박종실은 제조업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박종실은 어디까지나 상인으로써 상인정신에 충실하려 한 것이 그의 사업철학이었다고 판단된다.

## (2) 제주상선주식회사

1920년대 제주도내 상업과 교통의 발달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본래 토지가 척박하여 지주계층의 성장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주의 진화과정 속에서 지주자본의 상업자본 혹은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제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주체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설립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제주도 기업가로서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상선주식회사는 1922년 8월 설립된 후 1923년 1월 1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23년 2월 1일 본점을 제주면 건입리로 이전했다. 자본금은 15만원(불입자본금 3만7천원)으로 신용, 지불, 임대는 B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목적은 대판, 하판 및 조선 각 연안항로의 선박영업을 주로 하고 기타 부대사업으로 금전대부도 겸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김응두, 고석중이 퇴임하면서 회사대표 대표이사를 김근시로 정했다<sup>6)</sup>. 1924년 6월 20일 대표이사 회의에서 제주면 건입리 村井 彬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7월 29일 취임하였다. 제4차 정기총회에서 대표이사 황순하, 김계윤, 양두석은 같은 해 7월 30일 해임되었다<sup>7)</sup>. 그 후 대표이사 김태호는 임기만료로 1925년 8월 1일 퇴임하고 김근시, 박종실, 최원순, 김후식 등은 임기만료하였으나 1925년 8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재선되어 중임하였고 감사 김성배는 1925년 7월 30일 사임하였다<sup>8)</sup>. 1928년 1월 30일 감사 김임길, 김계윤은 임기 만료하였으며 최원순<sup>9)</sup>, 萩原駒藏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다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10). 동사는 1934년 9월 27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해산등기는 1934년 10월 9일)<sup>11)</sup>, 1935년 11월 25일에는 청산 종결하여 그 결산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sup>12)</sup>. 당시 거제운항주식회사, 삼신기선회사, 연안기선회사 등의 해운회사가 다른 지방에서 잇따라 설립됐으나

5) 岡田寅喜 편, 전계서, pp. 18 ~ 19.

6) {조선총독부관보} 1923년3월16일자.

7) {조선총독부관보} 1924년8월26일자.

8) {조선총독부관보} 1925년10월3일자.

9) 최원순(1876 ~ 1954)은 호는 우석(友石)으로 분단시대의 제주지방법원장, 변호사를 역임하였다. 그 후 1935년 제주소화운송주식회사 사장으로 사업에도 착수하여 1937년 제주금융조합장, 제주산업조합 감사로 추대된 바 있다.

10) {조선총독부관보} 1934년10월4일자.

11) {조선총독부관보} 1934년10월31일자.

12) {조선총독부관보} 1936년2월3일자.

이들은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부산, 목포, 군산 등의 개항에도 조선인에 의한 상선회사의 설립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상선주식회사는 부산, 목포 등의 연안항로의 개설은 물론 대관, 하관 등의 국제항로까지 개설했던 것이다. 따라서 목포, 부산, 군산, 원산 등 수많은 개항장에서도 한국인 상선회사가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점에 미뤄 볼 때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존재는 당시 상황에서 커다란 경제적 의미가 있다.

박종실의 숙원사업은 제주자본에 의해 해운회사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1922년 8월 김근시, 최윤순, 김임길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합자하여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제주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해운회사이다. 회사경영에 있어서는 김근시를 회사대표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감사에는 김임길, 박종실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최윤순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국내지역에 한정되어 운행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해외진출에 크게 이바지하여 해운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다.

### (3) 제주상사주식회사

박종실은 1931년에 상품판매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소맥분, 설탕, 칠성소주 등을 주요 판매품목으로 하는 제주상사조합을 설립하여 초대 조합장을 맡았다. 조합원에는 고창현, 홍종언 등이 참가하였는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중 소맥분 거래에 있어서는 일청제분의 중인상점(하관의 총대리점)과 특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산과 목포지역의 총대리점 사원들은 근거리의 자기들과 거래하지 않고 하관지역과 직접 상대했다고 하여 상거래의 방해공작을 하였으며, 제주상사조합에 일본인조합원의 가입을 간접적으로 종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제주상사조합의 임의단체를 법인 단체로 개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35년 6월에는 법인단체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주주로는 角 健輔, 古賀龜太郎 등 일본인 2명을 가입시키고 제주상사주식회사를 발족하였다.

제주상사주식회사는 1935년 6월 2일 제주읍 2도리에 설립하였다(설립등기는 1935년 7월 20일). 동사는 자본금 3만원으로 일본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설립목적은 ① 잡화류 판매(설탕, 밀가루, 소주, 맥주, 사이다, 잡곡, 비료, 석탄, 석유, 직물 등), ②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취득, 확실성 있는 사업에 투자, ③ 보험 대리업무, ④ 부대사업 일체를 취급하는 무역상사이었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로 角 健輔, 박종실, 고창현 등이며, 감사는 古賀龜太郎이 선임되었으며 존립 시기는 설립일로부터 만 20년이였다<sup>13)</sup>. 1935년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角 健輔를 회사대표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취임하였다<sup>14)</sup>. 1937년 9월 19일에는 자본금 8천원을 증자하고 新株拂入額 20원으로 하는 자본증액을 결의하였다<sup>15)</sup>. 1941년에는 대표이사 角 健輔, 박종실, 고창현, 감사 古賀龜太郎은 중임하고 角 健輔는 회사대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sup>16)</sup>.

또한 1940년 4월에는 제주도 생활필수품상업조합을 창설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

13) {조선총독부관보} 1935년8월28일자.

14) {조선총독부관보} 1935년11월16일자.

15)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10월26일자.

16) {조선총독부관보} 1941년9월22일자.

데 이사장직을 수행한 것은 박종실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민족감정의 발로였다고 보여 진다. 또한 평소 박종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즉,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실천을 생활필수품조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4) 제주상운주식회사

1922년 8월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해운회사인 제주상선주식회사는 급변하는 경제적 환경 하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1934년 9월 27일(청산종료일은 1935년 11월 25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게 된다. 제주상선주식회사가 재계에서 사라지면서 삼일해운주식회사를 1936년 3월 30일 제주읍 건입리에 설립하였다. 자본금 총액은 2만2천5백원(불입자본금 : 2만2천5백원)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규모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었지만 1주당 금액은 50원이고 1주당 불입금액도 50원이었다. 당시 제주도의 법인기업들은 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이 일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sup>17)</sup>. 이 회사의 설립목적은 선박의 화물 및 여객의 운송영업을 취급하는 해운회사이었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회사대표 대표이사 김태민, 대표이사 김태국, 문재숙, 감사 문재석이 선임되었으며 존립 시기는 설립일로부터 만 20년이다<sup>18)</sup>.

이후 1939년 7월 16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일해운주식회사는 제주상운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김태민, 문재숙은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 총회에서 재선 중임하게 되지만 박종실은 회사대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sup>19)</sup>. 이로써 제주상선주식회사가 소멸되면서 김근시는 해운업계에서 사라졌으며, 반면 삼일해운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박종실이 제주해운업계의 유일한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1941년 12월 18일 대표이사 이한철이 중임하게 되고, 1942년 2월 7일에는 김창오, 高島永光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다. 1942년 2월 17일에는 자본금 2만7천8백원을 증자하고, 신주불입액 25원으로 하는 자본증액을 결의하였다<sup>20)</sup>. 그리고 회사대표 대표이사 박종실, 대표이사 문재숙, 감사 문재석은 1942년 12월 25일 중임하고, 대표이사 김태민은 사임하여 감사에 취임하게 된다<sup>21)</sup>. 이때 국제항로가 취소되고 주로 제주-목포 간 정기여객선인 조선기선주식회사 소유의 황화환와 황영호의 선박대리점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그 후 황화환는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되고 1945년 이후에는 황영호 한 척만이 제주-목포 간을 왕래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후 황영호는 조선기선주식회사로부터 근해상선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 박종실은 제주상운주식회사의 경영을 문재숙, 김태국에 일임하여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이번에는 근해상선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약함으로써 1939년 설립이후 제주상운주식회사는 해체되고 말았다.

그 후 박종실은 철강선인 화물선 화양호를 객선으로 개조하여 1958년 9월에 남창운수사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1961년 7월 대표이사 박태훈은 하주에 대한 편의제공과 화물수집의

17) 박종실이 일본인 2명과 합자하여 경영하고 있었던 제주상사주식회사는 공칭자본금 3만원에 대해 불입자본금이 3만원이었다. 제주목재주식회사도 공칭자본금 3만원에 대해 불입자본금이 3만원이었다. 고승제(1975), {한국경영사연구}(서울: 한국능률협회), pp. 267 ~ 268.

18) {조선총독부관보} 1936년7월31일자.

19) {조선총독부관보} 1939년9월1일자.

20) {조선총독부관보} 1942년5월26일자.

21)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2월22일자.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로써 제주도에 대한 통운주식회사, 제주해륙운수회사와 더불어 3개 운수회사가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1962년 이후 회사별 하역실적을 보면 남창운수사가 50%, 나머지 50%는 대한통운주식회사와 해륙운수주식회사 2개 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 후 동사는 대한해운공사의 제주-부산 간 화물선인 이리호, 평택호의 대리권을 얻었으며, 1966년 4월에는 남창운수사를 남창운수주식회사<sup>22)</sup>로 개편하였다.

## 2) 강성익의 경영활동

### (1)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는 1927년 3월 4일 우면 서귀리에 자동차 운수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27년 3월 15일). 동사는 회사대표 대표이사 川崎増造, 송문준이 자본금 7천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운수회사이다. 당시 동사의 1주당 금액은 2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은 7千圓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는 川崎増造, 송문준, 中村鶴松, 四郷武十, 현겸오, 강성익, 김성신 등이며, 감사는 尾上貞彦, 四本正作, 김문옥, 송상오 등이 선임되었다(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 20년).. 또한 1929년 2월 25일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기존의 대표이사 7인, 감사 4인에서 대표이사 3인, 감사 2인으로 경영진을 대폭 줄이는 회사정관 일부를 변경하게 된다. 이 정관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대표이사 7명은 임기 만료하여 사임하게 되면서 강성익(회사대표 대표이사), 강익효, 강은찬 등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감사 4명은 임기 만료하여 사임하게 되고 萩原駒藏, 오남일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 1931년 8월 27일에 감사 萩原駒藏은 임기 만료하여 퇴임하고 동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강용기가 감사로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

그 후 동사는 1936년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사무소를 서귀면 서귀리로 이전하게 된다. 동 회의에서 대표이사 강성익, 강익효, 강은찬은 임기 만료하였으나 강성익, 강은찬은 재선 중임하고 오남일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 또한 감사 강용기, 오남일은 임기 만료하였으나 강용기는 재선 중임하고 강원범이 새롭게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 동사는 1942년 7월 30일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해산하기로 결정하여 대표이사 강성익(회사대표 청산인), 오남일, 강익효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종결하게 된다(해산등기는 1942년 8월 8일).

### (2) 제주자동차주식회사

제주자동차주식회사는 1944년 제주도내 3개 자동차회사(제주동부자동차주식회사, 제주통운주식회사, 제주남부자동차주식회사)가 통합되면서 제주읍 삼도리에 설립하게 된다(설립등기는 1944년 8월 30일). 동사는 일본인 萩原駒藏이 자본금 50만원을 투자하여 설립된 운수회사이다. 영업목적은 ① 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행사업. ② 유가증권 취급, ③ 기타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 및 조합 등이 발기하여 주식의 소유 또는 출자하였다. 동사의 1주당 금액은 50원이

22) 제주연감(1977)에 따르면 박종실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경영에 참여한 박태훈은 1970년대 이후 남창석유주식회사(사장), 남창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박석훈(박종희 2남)은 남창운수주식회사 대표(카페리 제주취급소장)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연감사(1977), {제주연감}, pp.320 ~ 321.

고 1주당 불입금액은 28원 80전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는 萩原駒藏(회사대표 대표이사), 강성익, 森井治榮, 宇都宮市太郎, 金園常輝 등이며, 감사는 오남일, 森井大源 등이 선임되었다(준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 30년). 이때 주식배분율은 일본인 51%, 한국인 49%로 회사운영의 모든 권한을 일본인이 갖도록 하여 대표이사에 萩原駒藏, 북종훈, 강성익, 전무에 김덕부가 선임되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포드 4인승 2대, 시보레 12인승 1대, 28인승과 35인승 버스 28대로 당시로는 충분한 자동차를 확보했으나 휘발유가 없어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여 버스 뒤에 목탄을 싣고 다니며 운행하였다. 운행 횟수는 1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 등 각각 1회로 제한하였다. 그 이후 제주자동차(주)는 대표자 양경호로 변경하면서 취급품목은 운송사업이고 종업원 수는 93명에 이르게 된다.

### 3. 경영철학

#### 1) 박종실의 경영철학

박종실의 경영정신은 ‘신용제일주의’, ‘삼균배지론(三均配之論) 투자관’, ‘합理的 기업경영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신용제일주의

박종실은 지금까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술회한다. 그리고 신용, 근면, 절약 중에서 신용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신용제일주의를 기본신조로 삼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고 이를 충실히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 (2) 삼균배지론 투자관

박종실은 시대적 혼란기의 사회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독특한 경영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본의 구성을 현금, 상품, 부동산의 삼분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을 줄이면서 폭리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자관으로 현대 경영학의 개념에 보면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박종실이 재테크를 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재산 중 삼분의 일은 현금, 삼분의 일은 부동산, 나머지 삼분의 일은 상품으로 균배해 놓고 향후 물가의 변동 등과 같은 불규칙한 경제 변동 시에도 위험을 분산시켜 장기간으로 보면 큰 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3) 합리적인 기업경영관

박종실은 합리적인 경영과 신용을 기업경영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독특한 신조인 리불가독식(利不可獨食, 이익을 혼자 먹을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즉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선인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나아가서는 일반소비자 등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나 소매업자는 그를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서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대량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박리다매 방식을 통해 사업은 번창시켜 나갔다. 더욱이 대량판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내 생산품은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었으며, 수입처를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모색해 나갔다.

## 2) 강성익의 경영철학

### (1) 강한 민족 주체성

강성익에 대한 지인들의 기억은 강성익은 ‘주체성이 뚜렷한 분 이었다’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로서 여기에 있다는 주체의식이다. 이러한 그의 뚜렷한 주체적 결단성은 해방 후 민선지사의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최초의 제주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

### (2) 청렴결백

강성익은 남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공직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이 생활에 내면화되어 있었고 타인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 (3) 제주사회 개발

강성익은 제주의 미래와 근대화를 위해 농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제주경제의 도약을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실현시키려 노력했다. 농수산업 진흥은 제주가 천연적인 축산적지인 점을 감안한데서온 구상이었고, 다른 한편 강성익 자신이 수산가공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실한 계획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었다고 여겨진다.

## 3. 사회적 공헌

### 1) 박종실의 사회적 공헌

박종실은 1957년 어려운 시기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을 위하여 사재를 기꺼이 내놓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제주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당시 제주도에 1956년까지는 해도 그러한 기능을 띤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어서 시민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박종실은 제주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1965년 11월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이들이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안식처인 경로당 청암정을 건립하여 제주시에 기증한 바 있다. 또한 1968년 6월에는 박종실의 1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의 유지에 따라 3형제(박경훈, 박태훈, 박충훈)가 재단법인 청암육영회를 설립하였다.

## 2) 강성익의 사회적 공헌

어릴 적 강성익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고 각고 끝에 거금을 모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성익은 어려서 남과 같이 공부를 못한 한의 회복과 기업의 성공적 원인을 지역사회에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강성익의 부의 결과가 지역사회 환원으로 연결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강성익은 평소에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돈을 가치 있게 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며 돈의 철학을 주위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강성익의 독지(篤志)는 지역사회의 무수한 일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강성익의 사회공헌 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주학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즉 우여 곡절 끝에 강성익은 마침내 그의 소신과 의지대로 서귀포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몇 가지 요약·정리 하면, 박종실은 소규모 소매상점에서 시작하여 훗날 종합무역상사의 효시이자 민족자본의 태동으로 일컬어지는 종합해운상사를 경영한 기업가사적 연구가치가 많은 기업인이다. 또한 박종실은 교역을 통하여 일본인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많은 지역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였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또한 기업경영 활동을 통한 이익을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도립도서관 기증, 경로당 건립, 육영사업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기업가상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일제의 침탈과 지역적으로 고립된 섬에 불과하던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현재 제주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박종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제주도민들을 일제자본, 일본인에 의한 상행위독점들로부터 지켜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의 제주도 기업가들은 좋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강성익은 여러 면에서 박종실과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박종실은 근검절약과 신용 등을 상도로 하여 자수성가하여 모은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도·소매업에 주력하였는데 반하여 강성익은 미약하나마 제주도 토지자본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운수업 분야에 뛰어 들었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외에 박종실은 제주상공회의소와 같은 상인 단체 활동 외에 정치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었던 반면 강성익은 상인단체는 물론 정계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제시기도 도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가 하면 해방 이후에도 여러 번의 낙마 끝에 도지사에 당선되었고 남제주군수를 역임하는 등 정치권력에 대한 기업가의 정치적 교섭력 확보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강성익은 박종실에 비해 정치·경제적 활동 기간이 긴 편이며 그의 신념과 철학에 의해 경제인 이상의 정치가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제주도민에게 남기고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 연구의 시대는 주권이 상실되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이중 삼중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생존에 급급하였던 암울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제주도 경제는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 주체적 역량이 없어 보이고 식민지 모국 즉 일본국내 시장에 대한 공산품 소비지역,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으로만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에 대한 세밀한 학문적 고찰을 통해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인식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즉 강제되어진 새로운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윤창출과 부의 확산 계기로 변화시켜 가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이러한 제주도 기업가들의 내재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체적 역량 확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

K C I

## □ 참고문헌

- 강신일·이창원(1997), {한국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성장}(서울, 자유기업센터)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pp. 144-186).  
고승재(1975), {한국경영사연구}(서울 : 한국능률협회).  
김병하(1991), {재벌의 형성과 기업가활동},(서울 : 한국능률협회)  
김종현(1992), {공업화와 기업가활동-비교사적 연구} (서울 : 비봉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1950), {대한민국 은행, 회사, 조합, 단체명부}  
이한구(1989), {일제하 한국기업설립 운동사} (서울, 청사)  
제주도립도서관(1988), {제주도립도서관 약사}.  
제주상공회의소(2000), {제주상의 65년사}  
조기준(1973), {한국기업가사} (서울 , 박영사).  
조선은행(1948), {조선경제연보}.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제주, 도서출판 각)  
청암선생추모회(1979), {청암선생-신용은 생명} (서울, 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황명수 편저(1993), {한국 기업경영의 역사적 성격} (서울, 신양사)

### 《일본어 문헌》

- 岡田寅喜編(1931), {조선실업신용대감} (경성, 일본흥신소경성지소)  
高橋龜吉(1939), {現代朝鮮經濟論}(千倉書房).  
溝口敏行·梅村又次(1988),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東洋經濟新報社)  
堀 和生(1995),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有斐閣)  
吉森 賢(1989), {企業家精神 衰退の研究}(東洋經濟新報社)  
大藏省管理局(1946),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文定昌(1941), {朝鮮の市場}(日本評論社).  
釜山商工會議所(1930), {濟州道とその經濟}  
善生永助(1929), {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道編}(朝鮮總督府).  
朝鮮事情研究會編(1956), {朝鮮の經濟}(日本經濟新報社).  
河 明生(1997),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明石書店)  
姫野 實編(1940), {朝鮮經濟圖表}(朝鮮統計協會)

## English Abstract

A Study on Entrepreneur of Jeju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on the Park Jong-Sil and Kang Sung-Ik's entrepreneurial activities-

Kim Hee-Chul (Jeju National Univ)

Ko Kwang-Myong, (Jeju National Educational Univ)

(Kang Young-Sun, (Jeju National Univ)

(Jin Gwan-Hun, Jeju halla collage)

This article addresses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ark Jong-Sil and Kang Sung-Ik who was of the most well-known modern business man and contributed toward the Korean marine transportation and brewing industry, and the modern economy formation of Jeju by means of the local capital rather than the non-Jeju capital.

Park Jong-Sil and Kang Sung-Ik economic activities for over 50 years was a important research data for Jeju's modern enterprises as well as its entrepreneurs. That company became an important driving force to economic growth of Jeju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nfluenced on another modern company of Jeju and its expansion. And jeju entrepreneur accumulated his wealth by modern company, and then he contributed his money to local community and showed ethical business of social-oriented or community-based entrepreneurship by oneself.

In recent years, entrepreneur's ethic and thei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ecome decreased gradually in Korean. And many entrepreneur have been the object of critical censure among common people, becau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by non-normal way within liberal market economy system. In this condition, Park Jong-Sil' and Kang Sung-Ik's economic activities and spirits and academic studies about that will suggest some meaningful points to contemporary entrepreneur.

**Key word :** entrepreneurial activities, business spirit, credit, entrepreneur's ethic,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к с і

к с і